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9편

Jeff Pippenger

2025-12-11

## 숫자 아홉

나는 요엘서에 대한 이 서론에서 이제 첫 여덟 편의 글에서 나온 몇 가지 요점을 간략히 요약하고, 요엘서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게 된 만큼 우리가 요엘서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규명하며, 그리고 물론 그것이 다니엘 11:11-16의 라피아와 파니움 전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살펴볼 지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포도원의 노래에 강조를 두었다. 왜냐하면 "경험"이 예언적으로 "노래"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십사만 사천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점인데, 이것은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요한이 표현한 방식일 뿐이다. 모든 대예언자들은 그들의 책을 이스라엘의 반역을 규탄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달리 말하면 모든 대예언자가 먼저 포도원의 노래를 부른다고도 할 수 있다. 나는 요엘 1장의 포도원의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계시들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내가 옳은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요엘서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예언적 연결들이 여러 바퀴살을 지탱하는 열쇠, 어찌면 그 바퀴살들의 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요엘의 증언은 다른 평행선들과 연결될 뿐 아니라, 기준점을 설정하는 듯하다. 특히 1장에서 포도원이 파괴되는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두 장에서 미국에서의 짐승의 이상 시험의 때와 또한 세계를 위한 짐승의 이상 시험의 때를 식별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포도원의 맥락 안에 놓여 있으며, 비가 오지 않으면 포도원은 살아 있는 포도원이라 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얼마 동안인가?'라는 상징으로 표현된 예언적 기간에 강조를 두어 왔다. 나는 '얼마 동안'에 관한 이 이미 확립된 원리를 다시 환기시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기초이자 모퉁잇돌인 '머릿돌'에 강조를 두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전개가 바로 그 '머릿돌'이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그 머릿돌은 처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나는 밀러의 보석들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바탕으로 볼 때, 머릿돌은 그분의 백성이 라오디게아 경험에서 빌라델비아 경험으로 전환하는 때이며, 그때 그들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가 되고 또한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전환한다. 이 전환이 머릿돌이다. 이 전환은 하나님의 백성이 '머릿돌' 기별을 듣고 보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놀랍게 보일 때 이루어진다. 머릿돌 기별은 모든 상징적 '머릿돌' 진리들을 하나로 모아 주기 때문에 절정이다. '일곱 번'의 기별은 밀러의 기초석이었고, 그것은 밀러파의 머릿돌이 될 것이었다. 오순절은 오순절기의 머릿돌이었고, 마찬가지로 '한밤중 외침'은 첫째와 둘째 천사들의 밀러파 운동의 머릿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밀러라이트 성전을 세우신 46년의 기간의 정점 혹은 마감석으로서, 그 마감석은 그리스도께서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사역을 위한

기초석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기초석은 1844년에 하늘로 가는 길을 밝히는 빛으로 세워졌고, 그러므로 세상 끝의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찾기 위해 '옛 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이 밀러라이트의 개척기 역사로 돌아가면,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기초가 놓이던 역사의 정점이었음을 발견한다. 한밤중의 외침은 성령의 부으심의 나타남이었다. 한 영혼이 '옛 길'로 돌아가 그 길의 시작, 곧 기초가 놓인 지점에 세워졌던 '밝은 빛'을 발견할 때, 그는 예레미야가 '안식'이라고 일컫는 한밤중의 외침을 발견한다.

"그들의 뒤, 곧 길의 시작점에는 밝은 빛이 세워져 있었는데, 한 천사가 그것이 '밤중의 외침'이라고 내게 말해 주었다. 이 빛은 온 길을 따라 비추었고 그들의 발에 빛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 바로 앞에서 그들을 성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안전했다. 그러나 곧 몇몇은 지쳐서, 성까지는 너무 멀다고 말하며, 이미 전에 그곳에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영화로운 오른팔을 들어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 팔에서 나온 빛이 재림의 무리 위로 물결치듯 비치자, 그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쳤다. 또 어떤 이들은 경솔하게도 자신들 뒤의 빛을 부인하며,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의 빛이 꺼져 발아래가 완전한 어둠에 잠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목표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길에서 벗어나 아래의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 떨어졌다." 엘렌 G. 화잇의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교훈, 57.

밀러주의 역사의 정점은 14만 4천의 역사를 위한 주춧돌이다. 1798년에 세 천사가 등장한 때로부터 일요일법에서 성소 정결이 성취됨으로써 승리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길은 한밤중의 외침이라는 기별로 밝게 비추어져 있는데, 이는 그 비유가 재림주의와 일요일법 위기 동안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한이 단힐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완전하게 반사하는 백성을 어떻게 일으키시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길 위에서 예수님이 앞장서 인도하시며, 영광스러운 오른팔을 들어 길을 계속 비추신다. 그러므로 길의 시작에는 밝은 빛이 있고, 길의 끝을 향해 이끄는 밝은 빛도 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은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므로, 길 양쪽 끝의 빛은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이다.

첫째 천사는 1798년에 나타나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하였다. "말하되 ... 그의 심판할 때가 이르렀도다." 심판의 때는 1798년에 왔고, 그것이 시작될 때 그리스도와 그의 새 신부—빌라델비아적 밀러파 재림주의—의 혼인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는 1844년 10월 22일에 혼인하게 되어 있었고,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신부는 준비되었다. 그 신부는 빌라델비아적이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는 정죄가 없었으니, 그녀는 자신을 준비하여 순결했기 때문이다. 심판의 선포는 1798년에 시작되어 1844년에 결말에 이른 그 혼인의 선포였다.

밀러주의 운동의 기초의 빛과 머릿돌의 빛은 혼인을 선포하는 기별, 곧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었다. 한밤중의 외침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역사, 그리고 밀러주의 역사의 기초이자 머릿돌이었고, 밀러주의 역사의 머릿돌은 십사만 사천의 역사에서도 기초석이자 머릿돌이다. 머릿돌이 놓이면 성전 건축은 완성되며, 그 마지막 '놀라운' 돌을 놓는 일은 2023년 7월에 시작되었다.

머릿돌을 이루게 될 다양한 예언적 성취들이 있지만, 머릿돌은 또한 기별의 절정을 나타낸다. 오순절은 오순절 시기의 기별의 머릿돌이었고, 마찬가지로 1856년에 하이럼 에드슨의 붓을 통해 나온 "일곱 때"의 빛은 밀러의 기별에 의도된 머릿돌이었다. 왜냐하면 밀러가 처음 발견한 기초적 진리는 "일곱 때"였기 때문이다. 1856년에 머릿돌 진리의 새 빛을 거절하는 것은, 옛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광야에서 죽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았다. 이는 2023년 7월을 1856년에 해당하는 때로 지목하며, 밀러주의 역사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의 전환점이요, 14만4천의 역사에서는 라오디게아에서 필라델피아로의 반전임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1844년에 순결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하지 않으셨는데, 그녀는 필라델피아이었고 그분은 일요일 법령 때 필라델피아에서 온 신부와 결혼하실 것이다. 그러나 먼저 그녀는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32.

1844년 10월 22일에 주께서는 그분을 따라 셋째 천사의 역사, 곧 셋째 천사가 상징하는 모든 것 속으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킨 신부와 혼인하셨으나, 1863년에 이르러 셋째 천사의 역사는 라오디게아의 광야로 빛나갔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는 셋째 천사의 시기를 나타내며, 이로써 14만 4천이 인침 받는 시기에 있는 미련한 처녀들의 한 예증을 제공한다. 그 처녀들은 천사들로 표상된 기별들에 의해 분리되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이다. 이는 분리의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말했다. "그의 일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엄숙하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내어, 하늘 공간을 위해 알곡을 인치거나 묶을 천사이다. 이러한 일들은 온 마음과 온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초기 저술, 119.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두 부류를 분리하고 묶는 늦은비의 기별이다.

"요한에게는 교회의 경험 속에서 깊고도 전율케 하는 의미를 지닌 장면들이 열려 보였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와 위험, 투쟁,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을 보았다. 그는 땅의 추수를 익게 할 마지막 메시지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하늘의 곡간에 들일 곡식 단이 되게 하거나 멸망의 불을 위한 장작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지극히 중요한 주제들이 그에게 계시되었는데, 특히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오류에서 진리로 돌아올 자들이 그들 앞에 놓인 위험과 투쟁에 관하여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땅에 닥쳐올 일들에 관하여 아무도 어둠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 대쟁투, 341.

이 세대에는 "진리의 말씀"이 "수확을 무르익게 할 마지막 기별"이 되며, 이 말씀이 두 부류를 갈라놓는다. 그 일은 또한 밀러의 꿈에 나오는 "dirt brush man"의 일이기도 하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마태복음 3:12.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때들 가운데 하나였다.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쭉정이는 알곡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너무 허영에 차 있었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으며, 겸손한 생애를 받아들이기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그 제자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영혼들이 시험을 받고 있다. 진리가 마음에 절실히 적용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음을 본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 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본다. 그러나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을 떠맡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들은 분노한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수군거리며 걸려 넘어져 떠나간다." 시대의 소망, 392.

1844년의 대실망에서 시작하여 1863년까지의 이정표들과 사건 전개는 9/11에서 일요일 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나타낸다. 왜 1844년이 9/11이냐고요?

화이트 자매의 저술들은 1844년 10월 22일에 셋째 천사가 왔음을 분명히 밝히며, 또한 1888년에도 왔는데 이는 9/11을 예표한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9/11에서 일요일법에 이르는 바로 그 역사를 특정하여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모든 증인들의 연합된 증언으로서, 9/11에서 일요일법에 이르는 기간이 '모든 이상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도래와 종결의 역사는 1844년부터 1863년까지였으며, 9/11부터 일요일법령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기간을 나타낸다. 그 역사는 또한 1840년부터 1844년까지로도 표상되며, 그 구도에서 1840년은 알파이고 1844년은 오메가이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구도에서는 1844년이 알파이고 1863년이 오메가이다. 1844년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십자가는 1844년과 일치하며, 알파와 오메가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셨다. 1840년 9월 11일부터, 요한계시록 10장은 1840년에 요한이 작은 책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여 1844년에 그의 배에서 느낀 실망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제시한다. 먹는 것이 시작이고, 배가 고틀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마지막 절은 그 역사가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됨을 나타낸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그것을 다 먹자마자 내 배는 쓰게 되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너는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였다. 요한계시록 10:10, 11.

요한계시록 10장과 하박국 2장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예언적 기간을 증언하는 두 장이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는 실망이라는 이정표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로 흠어짐이 있었으며, 이어 재결집이 뒤따랐다. 그 기간에 하박국의 두 도표에 관한 예언적 역사는 둘째 도표가 1849년에 인쇄되고 1850년에 해외에서 출판되면서 마무리되었다. 하박국의 도표들의 기간은 1843년 도표가 출판된 1842년 5월부터였고, 예언적 기간은 하박국의 두 도표 중 하나의 출판으로 시작된 그 지점에서 끝났다. 1843년 도표는 알파이며, 1850년 도표는 오메가이다.

1856년에 히람 에드슨은 윌리엄 밀러의 '일곱 때'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일련의 글을 썼다. 에드슨의 저술은 밀러의 활동의 오메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의도 아래 밀러의 기초 진리를 완성석의 위치로 올려놓았다. '일곱 때'에 대한 밀러의 빛은 알파였고, '일곱 때'에 대한 에드슨의 빛은 오메가였다.

1863년에 그 운동은 훗날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운동을 일으키게 될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는 밀러파가 개신교에서 나왔던 것과 같은 방식이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유대교에서 나와 기독교로 들어왔던 것과 같고, 또한 광야에서 죽게 되어 있던 옛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던 것과도 같다.

바로 그 동일한 역사적 시기(1844~1863)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화당 빨은 유사한 투쟁을 겪었고, 이는 결국 남북전쟁의 발발로 이어졌으며, 모든 역사학자들은 그 전쟁이 1863년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으로 중간 지점에 이르렀다고 동의한다. 링컨은 첫 번째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서, 당시까지 역사상 최악의 민주당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그는 이후 암살당했다. 이러한 예언적 특성들과 다른 요소들은 마지막 공화당 대통령에게서 반복된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는 흠여짐과 모이는 일이 있었다. 1863년은 일요일 법령을 대표하므로, 1844년에 일어난 흠여짐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라오디게아의 광야로 흠여진 1863년까지의 유일한 흠여짐이다. 1844년은 흠여짐을 낳았고 1863년도 흠여짐을 낳았으니, 이는 그 역사가 식별된 예언적 상징임을 증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1844년의 알파 흠여짐으로 시작하여 1863년의 오메가 흠여짐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흠여짐은 2020년 7월 18일에 임했고, 최종 오메가 흠여짐은 일요일 법령에서 성취된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흠여지고,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들과의 교제라는 특권 없이 우리 각자가 홀로 굳게 서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Review and Herald, 1890년 3월 25일.

하나님이 "너희 곁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너희는 또한 "그분이 너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실은 "너희가 주님을 알게 되리라"는 때를 바탕으로 한 여러 표현들로 나타나는 예언의 주제이다.

너희는 풍족히 먹고 배부르며,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내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시온, 곧 나의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되고, 더 이상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요엘 2:26, 27, 3:17.

예루살렘이 거룩할 때, 예루살렘은 승리한 교회다. 왜냐하면 투쟁하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로 이루어진 교회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이방인도 예루살렘을 지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곱 번'의 기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기도에는 그들이 라오디게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지 않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인으로 변화될 때, 그들은 '그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4월 19일의 알파 흠어짐(실망)과 10월 22일의 오메가 흠어짐(실망)은 10월 22일의 대실망 이후의 첫 공식 출판으로 표시된다. 출판은 밀러파 역사와 미국의 예언적 역사에서 예언적 표징이므로, 1844년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나온 것은 그 역사의 이정표이며, 그 이정표는 흠어짐을 가리킨다.

## 1847-사방으로 흠어진 남은 자들

'작은 무리'에게 드리는 말씀.

다음 기사들은 O. R. L. Crosier가 뉴욕주 카난다이구아에서 발행해 온 The Day-Dawn을 위해 쓰였다. 그러나 그 신문은 지금은 발행되지 않고 있으며, 다시 발행될지 알 수 없으므로, 메인주의 우리 가운데 몇몇은 이것들을 이런 형태로 내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작은 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 . .

독자는 E. G. 화이트 여사가 쓴 세 편의 글이 A Word to the 'Little Flock'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14-18쪽에 실린 화이트 여사의 두 번째 서한은 'To the Remnant Scattered Abroad'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첫 번째 환상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1845년 12월 20일 이녹 제이컵스에게 보내는 개인 서한으로 쓰였고, 수신자가 1846년 1월 24일자 The Day-Star에 처음으로 발표했다. 그 다음 1846년 4월 6일에는 제임스 화이트와 H. S. 거니가 브로드사이드 형식으로 재인쇄했다. 사소한 편집상의 수정과 성경 구절 추가를 제외하면, A Word to the 'Little Flock'에 실린 이 진술은 처음 인쇄된 환상 전체 기록과 동일하다." 제임스 화이트, A Word to the 'Little Flock', 25.

1844년은 천사의 강림과 실망의 해였다. 1845년에 첫 번째 환상이 기록되었고 1846년에 출판되었다. 그 첫 번째 환상은 '사방으로 흠어진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그 미혼의 10대 여예언자가 첫 환상을 기록할 당시, '남은 자들'의 예언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14만 4천의 특징 중 하나로서 예언적 필연에 따라 그들이 '사방으로 흠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846년에 화이트 부부가 결혼하여 엘렌의 성이 화이트로 바뀌었다. 같은 해에 화이트 부부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1846년에 언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표시되었고, 1844년에 시작된 예언적 결혼은 1846년에 완결되었으며, 1847년에 첫 공식 간행물이 인쇄되어 우편으로 발송되었다.

## 1850년 5월

친애하는 독자여—이 논평에서 나의 목적은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작은 저술을 흠어진 양떼에게 바치며, 이 점에 있어 그들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였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빈다. 아멘. 제임스 화이트, 제칠일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다, 2.

제임스 화이트의 출판물은 그의 독자들이 여전히 흠어진 양 떼임을 밝히는 한편, 제칠일 안식일을 옹호하는 글이기도 하다. 이는 안식일과 셋째 천사에 대한 밀러주의 재림운동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아직 초기 단계에 있던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것은 1850년 도표가 출판된 같은 해에 출판되었으며, 둘은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위기에 대비해 주님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을 함께 드러낸다. 예수님은 언제나 시작으로 끝을 보여 주시며, 1844년에 1843년 도표를 사용해 그 기별을 전한 이들은 1850년 도표를 사용해 그 기별을 전하게 될 이들을 예표하고 있었다. 하박국의 두 표의 기간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하박국의 표와 더불어 그 시기의 기별을 선포하고 있었고, 1850년에 제임스 화이트는 1850년 도표와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 도표는 1849년경 니콜스 형제가 만들었는데, 그때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가 니콜스 형제와 함께 살던 시기였다. 제임스 화이트는 1850년 도표의 제작에 직접 관여했고, 그해에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1850]년 9월 23일,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시기를, 그분이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손을 펴셨으며 이 모으는 때에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흠어짐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타격을 받아 찢겼으나, 이제 모으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치유하시고 싸매실 것이다. 흠어짐의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거의 효과가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려고 손을 펴신 모으는 때에는 진리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이 의도된 효과를 거둘 것이다. 모든 이는 연합하여 이 일에 열성을 내야 한다. 나는 이제 모으는 때에 우리를 이끌 본보기로 흠어짐의 때를 들먹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임을 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그때 하신 것 이상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모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설교되는 것만큼이나 지면에 게재되어야 한다." Review and Herald, 1850년 11월 1일.

"74쪽에 있는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다'는 견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연합과 힘, 그리고 그가 다시 그의 백성을 연합시키고 일으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만을 가리킨다." 초기 저술, 86.

'Early Writings'에서 화이트 자매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사용하여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셨음을 내게 보여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Review and Herald'의 그 구절을 논평하고 있다. 그분은 1850년에 그의 손을 펴셨다. 그분이 1844년 10월 22일에 그 백성들을 지성소로 모으셨을 때, 그것은 기원전 677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의 흠어짐의 종결이었다. 문자적 영화로운 땅에 거하던 문자적 유다는 기원전 677년에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따라 2520년 동안 흠어졌다. 2520년의 끝에서 영적 이스라엘은 1844년 10월 22일에 모였고 곧바로 흠어졌으며, 주께서 그의 손을 두 번째로 펴실 때 그 흠어짐이 끝났다. 그분이 그 본문에서 그들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곧 "그의 백성을 결속시키고" "그의 백성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함께하던 천사가 말했다. '그의 말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엄위롭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내어, 하늘 공간을 위해 그 알곡을 인치거나 묵을 천사이다.' 이러한 일들은 온 마음과 온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나는 또, 우리가 자비의 마지막 기별을 받고 있다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오류를 받아들이거나 흡수하고 있는 자들과 분리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았다. 나는 젊은이도 노인도 오류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말했다. '유익이 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을 그치게 하라.' 원고 공개집, 5권, 425쪽.

1850년에 시작된 둘째 모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치로 '들려' 높여질 때 받는 인침(결속)을 예표했다. 1850년은 주께서 14만 4천을 모으시는 때를 지목한다. 예언적 필연성상 그들은 모이기 전에 흩어져 있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삼일 반'은 1260을 상징하며, 이는 2520의 절반으로서 2020년 7월 18일 이후에 뒤따른 흩어짐을 대표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은 14만 4천이 될 자들의 둘째 모으심과, 이사야 11장 11절에 제시된 대로 열방을 향해 들어 올려지는 기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찾아오리니,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이사야 11:10, 11, 12.

1850년에 주께서는 하박국의 두 도표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밤중 소리의 기별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다. 2023년 7월에 주께서는 하박국의 두 도표로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밤중 소리의 기별과 함께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셨다. 1850년과 2023년 7월 둘 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말하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의 모임을 가리킨다. 11절은 10절과 12절 사이에 끼어 있으며, 그 두 절은 모두 세상을 향해 기치를 들어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세 구절 각각이 그 기치를 가리키지만, 가운데 구절은 그들을 '남은 자'로 지칭한다. 그 남은 자들은 두 번째로 모이며, 그들이 모여 오는 지파의 수는 여덟이다. '8'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 간 노아의 방주에 있던 이들을 뜻할 뿐 아니라, 일곱 교회 가운데 여덟째 교회에 해당하는 이들도 뜻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두 증인은 부활한 자들이다. 숫자 '8'은 부활의 상징이며, 십사만 사천의 상징이고, 세례의 상징이며,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 가 열방을 향한 이사야의 기치가 되는 자들의 상징이다. 주님께서 1850년부터 1865년에 두 번째로 손을 펴셨고, 2023년 7월에도 다시 손을 펴셨다.

2023년에는 1856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곱 때에 관한 새로운 빛이 있었다. 1856년부터 1863년까지의 기간은 주께서 남은 백성을 군대로 일으키실 때의 십사만 사천의 역사를 상징한다.

이사야 11:11은 요한계시록 11:11과 완벽하게 일치하며, 그것은 다시 다니엘 11:11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사야와 요한은 내적 역사를 묘사하고, 다니엘은 외적 역사를 묘사한다. 다니엘의 11:11에 나타난 외적 선은 요한의 11:11에 나타난 내적 선과 병행하며, 이사야 11:11은 외적 선에서 하나님의 다른 양 때를 불러내는 내적 선의 기치를 내세운다. 팔모니는 이 구절들을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분만이 이루실 수 있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 놓았다.

이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 인공 정보와의 대화:

수학계에서는 숫자 "11"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11이라는 수는 단지 소수라는 점을 넘어 여러 가지 진정한 수학적 흥미와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자들과 수학 애호가들이 흔히 강조하는 주요한 점들입니다:

11은 다섯 번째 소수로, 가장 작은 두 자릿수 소수이며, 10진법에서 팰린드롬인 최초의 소수이다. "11"은 반복된 1로 이루어진 수(레크리에이션 수학에서 repunit이라 부름) 가운데 소수인 것 중 가장 작은 것이다. 두 자릿수의 두 숫자가 같은 소수는 이것 하나뿐이다. 11, 22, 33, 44 등에서 소수인 것은 "11"뿐이다. "11"은 메르센 소수의 지수이다.  $1/11 = 0.090909\dots$ 의 소수 전개는 순환마디가 2에 불과하지만,  $1/11$ 은 다른 면에서도 유명하다. 소수 수열 11, 101, 1009, 10007, 100003 등은 등차수열 속 소수에 관한 논의에 등장한다. 22차 디헤드랄 군(정11각형의 대칭군)은, "11"이 군론에서 관심을 끄는 비가환이며 중심이 없는 구조를 갖는 디헤드랄 군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가장 작은 소수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이론물리학(끈 이론/엠 이론)에서는 우주를 종종 11차원 시공간으로 모형화하며, 그 분야에서 일하는 물리학자와 수학자들은 11의 등장을 자주 언급한다. "11"은 짝수 자릿수를 가진 팰린드롬 소수 가운데 유일한 예이다(자릿수가 2보다 큰 짝수인 다른 모든 경우는 11로 나누어떨어져 합성수이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수론의 정리이다.

결론:

"11"은  $\pi$ ,  $e$ , 혹은 황금비만큼의 슈퍼스타급 위상을 지니지는 않지만, 여러 현상에서 가장 작거나 최초의 예로 반복해서 등장한다(최초의 레푸니트 소수, 유일한 짝수 자릿수의 회문 소수, 많은 증명과 반례에서의 초반 등장, M-이론의 11차원 등). 그러니 수학계는 11을 중요한 수로 본다.

말씀에 영감을 주신 분이 곧 말씀의 참된 해석자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듣는 이들의 주의를 자연의 단순한 법칙들과 그들이 날마다 보고 만지는 친숙한 사물들로 돌리심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설명하셨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자연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끄셨다. 많은 이들이 그의 비유의 뜻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위대한 스승께서 영적 진리를 결부시키신 그 사물들과 날마다 접하는 동안, 어떤 이들은 그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신 신적 진리의 교훈을 분별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의 사명의 진리를 확신하여 복음으로 회심하였다. Sabbath School Worker, 1909년 12월 1일.

"이처럼 자연계에서 영적 왕국으로 이끌어 주는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사람과 하나님을, 또 땅과 하늘을 하나로 잇는 진리의 사슬을 이루는 고리들이다." 그리스도의 실물교훈, 17.